



# 랑데부 연극 메뉴얼

무주고 · 연극부 · 랑데부 · 무주고 · 연극부 · 랑데부 · 무주고 · 연극부 · 랑데부

## “연합 연극 동아리, 랑데부의 탄생”



랑데부는 작년 무주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진 '라운제나'와 무주중학교에서 긴시간 명맥을 이어온 빠라뽕짜쓰와 합쳐져 올해 새로 탄생한 동아리다. 랑데부는 교육협력지구사업에 따른 무주지역 중고생 연극 동아리로 만들어짐으로써 무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만 아니라 중학생도 포함되었다.

랑데부(rendez-vous)는 프랑스어로 '특정한 장소에서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연극 무대에서 동아리원과 관객들과 만남'으로 재해석해서 공연자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갈 것을 희망하며 동아리 이름으로 결정짓게 되었다. 랑데부에서는 단순 연기 관련 역량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시선이 향하는 무대에 직접 서보으로써 발표에 대한 두려움 완화와 매년 축제에서 결과물을 창작해내 창의력 또한 기를 수 있다.

랑데부 부원들은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동아리 내에서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 무주고등학교 강당에서의 무대를 성사시켜냈는데, 이를 상기하며 부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팀원들과 협력하며 미래에 어려운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며 더 나아가 이번 동아리 활동 경험이 부원들을 더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자취가 되길 소망한다.

[이서준 기자]

## 무주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랑데부"에서 조사한 무주고등학교 유행어는?

대중성에 민감한 연극 공연. 관객들의 연령층에 맞게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야 한다. 무주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랑데부에서는 최근 무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친구 간 대화에서 많이 쓰는 단어 또는 말투를 조사했다.

조사 해본 결과 "응 어쩔티비"와 "이건 못 참지" 등이 있었다. "응 어쩔티비" 등은 초등학생들의 유치한 말투 중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응 저리 가서 티비나 봐" 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 이름들이 00티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짬티비" 또는 "마크티비" 등이라고 놀리는데 이렇게 놀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말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이건 못 참지" 이다. 사실 이 말은 그냥 평범한 말 중 하나였다. 다만, 2018년 부터 여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건 못 참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원래는 "아ㅋㅋ"를 덧붙여서 "아ㅋㅋ이건 못 참지"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 사용해도 위화감이 전혀 없는 점에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도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정, 박찬용 기자]

## 진로 in 연극

선생님의 직업을 꿈꾸는 학생, 연극부, 도움이 되는가?

Q: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에게 연극부가 주는 도움은 무엇인가요?

A: 선생님이 되려면 학생들 앞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작게 내거나 내성적이면 안돼요. 연극부를 하면서 무대 경험이 많아지니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생들 편에 서는 일이 생길 때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 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죠 또한, 연극 준비를 하면서 상대역과 맞춰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험으로 나중 학생들을 대할 때 이해하고 맞춰주기도 하죠

Q: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에게 연극부수업을 받고 나중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여러 감정을 표현 하다보면 창의력이 풍부해져 단합대회 때 즐길수있는게임을 할수 있고 나중 학생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고민을 잘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다



[이영주 기자]

##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랑데부’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들을 연극 대본으로 해결..

### 1. 시험을 망쳤을 때

민지: 엄마 사실 이번 시험을 망쳐서 다음 시험 준비에 집중이 안돼요..

엄마: 지금 네 시험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것에만 너무 상심 해 있다면 무언도 변하지 않을거야. 네가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 여러 번 넘어졌지만 울지 않고 일어나 계속 달리더라. 그리고는 결국 그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었어. 민지야 어떤 시행 착오를 겪어도 그것을 발판 삼아 다음 성적을 올려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 아닐까? 민지야 너는 모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마가 항상 응원할게!

### 2. 아이들보다 뒤쳐져 조금 할 때

학생: 마샤씨 친구들은 잘 해나가고 있는데 저만 뒤쳐지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마샤: 각기 다른 빵의 레시피처럼 우리의 꿈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나의 목표는 모두 달라요. 그리고 시작하는 출발선도 마지막 결승선도 모두 다르죠. 친구들이 가는 그 길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학생: 고마워요 마샤 위로가 되네요. 저도 지금에 조금해 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가며 앞으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3. 진로가 없을 때

민철: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꿈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예요.

정수: 아직도 진로결정을 못 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일과 활동을 해보면서 자신한테 잘 맞는 것들을 찾아 그와 관련된 직업을 생각해보고 선생님 및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여 자신의 적성은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직업도 좋겠지만 우리에게 1순위로 중요한 것은 관심도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직업에 대해 흥미가 없다면 다 의미 없으니까요. 그러니 진로 결정을 할 때는 하고 싶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곧 자신에게 맞는 꿈을 꼭 찾게 될 거예요.

### 4. 휴대폰을 놓지 못할 때

유민: 선생님 저는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자꾸 휴대폰만 하게 돼요. 어찌죠?

선생님: 나도 고등학생 때 많이 힘들었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 하기 싫고 자꾸 놀고만 싶었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목표를 다시금 생각하고 제 마음을 다잡았어. 그리고 휴대폰은 항상 멀리 두는 게 좋단다. 그래야지 폰을 안 볼테니까. 나도 원래는 학생들에게 "3년만 참아라.", "그러면 70년 인생이 핀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지 지금 당장의 우리를 위해서라도 공부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자. 모두 잘 할 수 있을 거야.

[조아라, 안혜원, 최준호 기자]

## 랑데부가 추천하는 연극과 무주의 연극인을 만나



무주의 대표적인 연극인으로 김성녀씨가 있다. 연극인 김성녀씨는 여성극단 스타 박옥진 명창과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김향 사이에서 태어나 5살 때부터 천막극장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가야금 병창 인간문화재 박귀희 선생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1976년에 극단 '미추'를 창단하고 '마당놀이' 라는 연극무대에서 정식으로 데뷔했다.

[김한나 기자]

연극부 추천하는 연극은 '빨래'다. 내용은 강원도 아가씨 나영의 힘든 서울 생활이야기와 몽골청년 슬롱고와의 옥상에서 빨래로 인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순수한 면에 점점 끌리게 되면서 나영과 슬롱고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다. 일반 연극 소극장에서 14년 이상을 유지해왔으니 그만큼 인기있고 완성도 높은 연극이라 보는 걸 추천한다.

이밖에도 뮤지컬과 창극·영화·TV 드라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천의 얼굴'이라는 호칭을 받는 등 1인 32역으로 출연했던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이 최고 대표작으로 꼽힌다. 김성녀씨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뜨거운 현역으로 남겠다"며 지난 2012년부터 국립창극단 예술 감독을 맡으며 제작자로서도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 함께 배워보는 재미난 연극 수업!



[노명진 기자]

## 행복한 71억을 위한 연극관람예절 게임

참여 하시겠습니까?



연극 시작 전 입장 해주세요 [OX]

공연장내에서 휴대폰 사용 가능합니다 [OX]

관람 중 동영상 찍어 추억 남겨 주세요 [OX]

관람 중 친구랑 떠들지 마세요 [OX]

연극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하지 마세요 [OX]

사진이나 영상 촬영 하지 마세요 [OX]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손들고 물어봐 주세요 [OX]

졸릴 땐 연인 품에 안겨서 아옹대옹 해주세요 [OX]

공연이 끝나면 박수와 환호로 호응해주세요 [OX]

[김영빈, 이예나, 정영주 기자]

‘고 스탱’은 연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걸음자세와 무대에서 표현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 자연스럽게 걷다가 스탱을 말하면 그 순간 멈춰서는 것이다. 이때 다양한 감정을 몸으로 나타내면서 걷다가 멈추면 하나의 연극처럼 맛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마냥 걸다가 멈추는게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며 걸을 때에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표현 방법과 나중에 무대 위에서 자세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 재미도 있고 여러 장점들이 가득한 ‘고 스탱’ 일상에서도 재미난 놀이로 사용 되었으면 한다.